

# 《문명국으로서의 뚜렷한 발전모습을 보이고있다》

## — 남조선 언론들이 지적 —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공화국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보도하고 이 문명국가로서의 발전모습을 있다.

### 국가행사를 문명국가의 체모에 맞게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총비서께서 지난 9월 8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해 차린 연회만 보아도 북이 국가행사를 문명국가의 체모에 맞게 특색있게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정원잔디밭에 꽃과 삼팔술잔, 빵 등이 놓인 원탁을 놓고 환색양복에 검은색비백타이를 맨 남자접대원들이 탁을 오가며 술을 부어주는 모습과 본부청사의 환벽과 등근 기둥을 비추는 조명 등이 조화를 이룬것이 특색있으면서도 수준이 높은 연회라는것이 알린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공화국창건 73돐경축 열병식행사때 락하산병들이 공화국기를 하늘에서부터 휘날리며 내려오는 모습과 밤하늘을 배경으로 레드등을 단 무인기들이 다양한 색으로 대형국기를 형성하고 화려한 조명장식을 펼쳐보이는 모습 등은 지난 시기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였다.

### 도시와 건축물을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남조선언론들은 북에서 도시와 건축물의 내외부장식 등을 세계적수준에 맞게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미고있다고 전하였다. 새로 건설된 삼지연시만 보아도 낮은 층의 삼각지붕주택들이 바늘없나뭇잎속에 아담하게 들어선고 지붕은 주황색이나 분홍색으로, 벽면은 하얀색벽돌과 타일로 골게 단장하였을뿐 아니라 주택들사이에 조성된 야외정원들과 실내체육시설, 가로등과 주택들사이로 뻗어있는 차도로 등은 아늑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건물들의 실내장식도 벽과 바닥재로, 가구배치와 조명설치들이 다채롭고 화려하며 세련되게 꾸미였을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리성을 기본으로 하고있는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이 세계적수준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감자재의 다양화, 다색화, 다기능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김정은시대에 변모되고있다. 북이 도시형성과 건축물의 내외부장식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단색에서 다색으로 변모되는 등 선진국수준으로 발전하고있다고 하였다.

### 산업기술, 상표도안에서 새로운 변화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총비서의 지도의 손길에 북에서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총비서께서 《민물레》를 비롯한 일부 상표도안들을 직접 지도하시였을뿐 아니라 그 이룩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상표도안들에서 목란과 해바라기, 철쭉, 소나무 등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많이 리용하고있다. 민족의 넉과 얼이 깃들여있는 상징적인 나무이며 국수인



아름다운 려명거리의 불빛



다양한 산업기술도안들

소나무는 북에서 학생들의 책가방상표로 되고있다. 《소나무》배낭식가방은 김정은총비서께서 직접도안가, 제작자가 되어 450여건에 달하는 상표도안들을 직접 보아주고 지도해주시신 제품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계기마다 체육분야의 상표도안들도 많이 만들어 공개하고있다. 체육단들의 마크와 경기복, 체육기자상표들이 련이어 개발되면서 자기식의 상표마크를 가진 체육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가장 눈에 띄우는것은 조선중앙TV의 보도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는 《처녀어머니》의 미담을 전하는 과정에 방송진행자가 취재자와 함께 출연하여 해당 소식을 전한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지난 시기와 달리 미담의



삼지연시



###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공화국의 대학생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밝혀주시면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 장학금,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무교육과 전반적중등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였다. 1959년부터는 공화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이렇듯 우월한 교육제도에서 돈 한푼 안내고 배움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활짝 꽃피우는것도 고마운데 이번엔 또다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줄데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으니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의

## 장학금과 장학금과

장학금을 받으며 나라의 인재로 자라나는 공화국의 대학생들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있다. 날로 늘어나는 등록금으로 하여 절



늘어나는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조선의 대학생들

### 독자문답 제미동포 리연자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에서는 재해를 입어도 불행을 모른다는것이 사실인가?

단층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어 인민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렸다. 2016년 함북도북부해북구전투과정중 통해서도 국가가 인민들에게 안겨준 배려가 얼마나 크고 뜨거웠는지 알게 될 수 있다.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폭우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함북도 백수읍개 지구에 3 000여동에 달하는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한순간에 방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조선로동당의 중대결단에 의해 200일전투의 수 없는 정신, 육체적능력의 한계로부터 외부적응력과 보호호봉제가 제기되게 된다. 정에 주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돌봐준다는 《북지시설》들도 이따금씩 정반대로 학대하고 폭력의 란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

### 세월이다 가보라지

많은 나라들에서 년로자라는 말이 좌절과 불행, 천대와 멸시의 대명사로 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이 행복과 존경의 대명사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며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무의무탁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 존경과 공대의 대명사-년로자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이 요구와 능력에 따라 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고있으며 활력에 넘쳐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국가적인 관심과 배려속에 수많은 년로자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최첨단과학기술발명과 인제육성, 후대교육과 향토관리 등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육체는 늙어도 생의 마

###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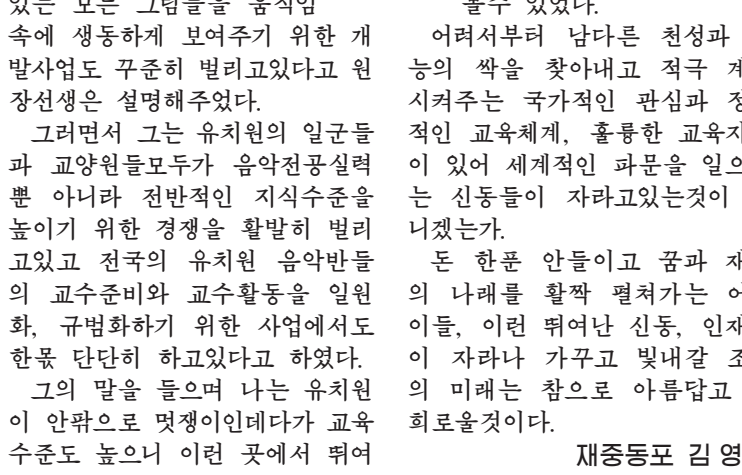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년령성리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꾸준한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는 과정에 교육교양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자랄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한다. 지능교육수준을 개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어린이교육지원 프로그램개발사업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한다. 이 나라에 교육혁명을 일으켜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서 혁신을 가져오자면 종전의 구태연한 교육교양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 착상이었다.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전문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어린이들이 알고싶어하는 동물들이 실제 살아움직일뿐 아니라 그 개별적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할수 있는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램 《신비경》(동물원)을 개발완성하였다. 범이 움직이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걸거나 뛰는 모양, 동작, 성성이 가늠할수 있는 특이적인 모습 등 100여종의 동물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신비경》은 교육교양사업에 도입되어 어린이들이 사물현상을 관찰하고 대비분석하는 능력을 훨씬 높여주고있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식물, 사물, 자연현상으로부터 도덕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교재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움직임속에서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한 개발사업도 꾸준히 벌리고있다고 원장선생은 설명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모두가 음악전공실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리고있고 전국의 유치원 음악반들의 교수준비와 교수활동을 일원화, 규범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유치원이 안팎으로 멋쟁이인데다가 교육수준도 높으니 이런 곳에서 뛰

난 재능을 가진 신동들이 수없이 자라나는것은 너무도 옹당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심정은 나뿐이 아닌 유치원참관한 많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감상록에 남긴 아래의 반영들이 그것을 실증해주었다. 《나는 위대하고 현명하고 다심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정상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이 앞날의 조선의 훌륭한 미래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고 현연할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진짜 배우같다!》 《이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들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전세계에 조선의 영예를 빛내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창창한 미래로 자라나는 정상유치원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밝은 앞날을 확신할수 있었다. 이런 뛰어난 신동, 인재들은 조국의 그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조국방문의 날날 나는 신문과 TV를 통해 전국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과 전국소묘추진회에서 여러번 특등을 하였다. 나는 소학교 학생들의 그림출품과 전국어린이바둑경기에서 패권을 쥔 꼬마바둑신동들의 경기장면,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낼 공을 안고 추수기술을 열심히 배우가는 나 어린 추수인재들의 대견한 모습도 볼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천성과 재능의 싹을 키우고 적극 개발시켜주는 국가적인 관심과 정구적인 교육체계,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려는 신동들이 자라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돈 한푼 안들이고 꿈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어린이들, 이런 뛰어난 신동, 인재들이 자라나 가꾸고 빛낼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환희로울것이다.

재중동포 김영란



재해지역에서 새집들이 진행 (2020년 11월)

### 은갖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입니다.

이렇듯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세주고 지켜주는 령도자가 계시고 고마운 품이 있기에 피해지역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희소망 자원의 광란도 공화국인민들의 보금자리와 그속에서 꽃피는 그들의 웃음을 빼앗아올수 없다. 본사기자



재해지역에서 새집들이 진행 (2020년 11월)

식건축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을 비롯하여 도처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마다에서는 우리 세월 좋아, 로동당이 좋아라고 터치는 년로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얼마전 평양양로원의 보양생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롤러가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을 꾸는것만 같다. 이런 궁궐같은 보금자리에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우리야말로 세상도 몰도 없는 만복의 주인공들이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를 부르며 회고와 란만에 넘쳐 생활하는 년로자들이 터치는 진정한 목소리. 《인생의 로년기에도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고마운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년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홍범식